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시황/ESG Analyst 이성훈 shl076@kiwoom.com



키움증권

미 증시, 트럼프 감세안 상원 통과 속 업종별 순환매 장세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1일(화) 미 증시는 ISM 제조업 PMI, JOLTs 구인건수 호조에도 감세안 상원 통과 속 트럼프-마스크 간 설전에 따른 테슬라 급락, 기술주 → 비기술주로 자금 로테이션 등의 영향으로 다우 지수는 상승한 반면 S&P500과 나스닥은 하락 마감 (다우 +0.91%, S&P500 -0.11%, 나스닥 -0.82%).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OBIBB)이 최종 표결에서 상원 표가 동수를 이룬 가운데 JD 밴스 부통령이 마지막 한 표 (타이 브레이커)를 행사하며 극적으로 상원을 통과. 상원을 통과한 트럼프 감세안은 다시 하원을 통과해야하는 절차가 남아있음. 상원에서 통과한 법안은 미 하원에서 2일 토론 및 표결 일정이 정해진 상태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독립기념일인 7월 4일 이전까지 해당 법안에 최종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 이 과정에서 감세안을 두고 트럼프-마스크 간 SNS 상에서의 설전과 갈등 격화가 테슬라를 비롯한 주식시장에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한편, 베센트 재무장관은 아직까지 '상호관세를 어떤 국가에 얼마나 부과할지 혹은 유예 기간을 연장할지'에 대해 결정되지 않았다고 언급. 금주 4일까지 트럼프 행정부는 감세안 입법 완료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무역협상 관련 논의는 4일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주 후반부터 차주 9일까지 관세 뉴스풀로우에 따른 증시 민감도 높아질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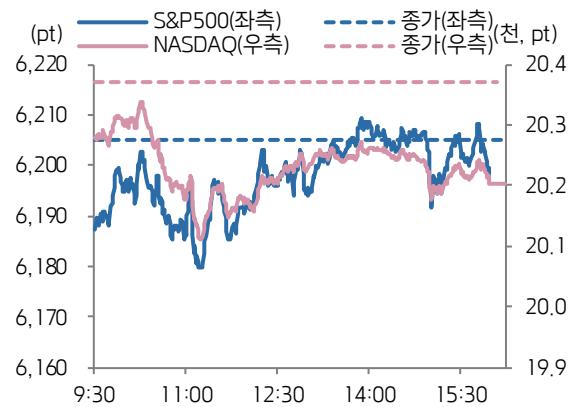
금일 발표된 ISM 제조업 PMI, JOLTs 구인건수 등 경제 지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치를 기록. ISM 제조업 PMI는 49.0을 기록하며 전월치(48.5)와 컨센서스(48.8)를 모두 상회. 미국 제조업황은 여전히 50pt선을 하회하며 위축 국면이지만, 생산지수 45.4 → 50.3, 신규 수출주문 지수 40.1 → 46.3에 힘입어 예상치 상회. 미 노동부의 5월 JOLTs 구인건수도 776.9만 건으로 전월(739.5만 건) 대비 증가하며 여전히 고용시장이 견조함을 보여줌.

다만, 고용 지표 측면에서는 금주 후반에 발표될 6월 비농업 고용보고서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을 전망. 전일 파월 연준의장은 '관세 불확실성이 없었다면 금리를 더 내렸을 것이다'라고 발언하는 등 이전보다 유화적인 톤의 발언을 내놓는 상태. 특히,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지속적으로 데이터에 달려 있다고 언급함에 따라 이번 달 비농업고용(3일), CPI(15일)에 대한 중요도는 이전 대비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판단.

전일 국내 증시는 장 초반 관세 협상 기대감 속 위험 선호 심리가 지속된 가운데 상법 개정 통과 가능성이 가시화됨에 따라 지주사, 금융 등 저 PBR 테마주가 동반 급등. 이후 원전 등 기존 주도주 내에서 차익실현 매물 출회되며 양 지수는 전강 후약 장세로 마감 (코스피 +0.58%, 코스닥 +0.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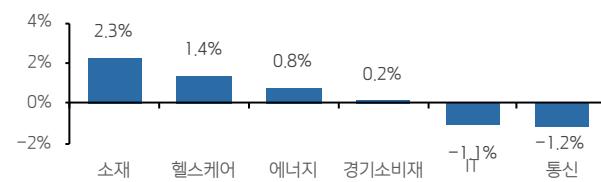
금일 국내 증시는 미 증시에서의 기술주 및 반도체 조정 등을 반영하며 보합권으로 출발할 것으로 전망. 한편, 트럼프 정책 불확실성, 미국 재정 적자 우려 등을 반영하며 달러화 지수는 현재 96.3pt선까지 하락한 상태. 이와 연동하여 원달러 환율도 1,350원대에서 하향 안정화된 가운데 신흥국 증시를 필두로한 비미국 증시의 강세 여건이 마련된 상태. 여기에 최근 상법 개정을 비롯한 정부 정책도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숨고르기 흐름을 보이고 있는 외국인 수급이 재차 매수세로 전환할지에 주목해볼 필요.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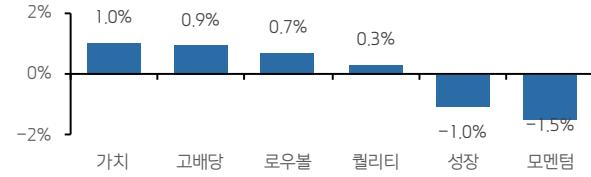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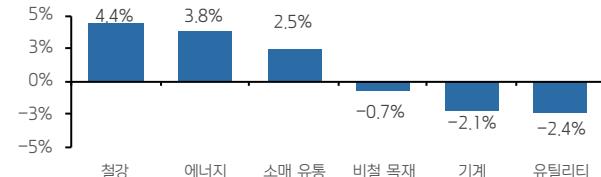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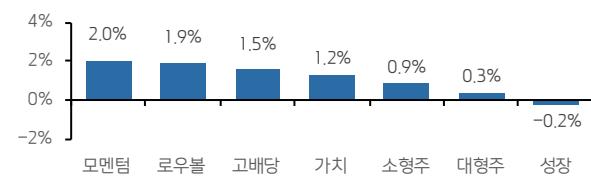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종목

종목	종가	DTD(%)	YTD(%)	종목	종가	DTD(%)	YTD(%)
애플	207.82	+1.29%	-16.81%	GM	52.03	+5.73%	-1.77%
마이크로소프트	492.05	-1.08%	+17.19%	일라이릴리	775.90	-0.47%	+0.88%
알파벳	175.84	-0.22%	-6.89%	월마트	98.24	+0.47%	+9.29%
메타	719.22	-2.56%	+23.04%	JP모건	290.41	+0.17%	+22.53%
아마존	220.46	+0.49%	+0.49%	엑손모빌	109.24	+1.34%	+3.4%
테슬라	300.71	-5.34%	-25.54%	세브론	145.57	+1.66%	+2.86%
엔비디아	153.30	-2.97%	+14.17%	제너럴일렉트릭	98.24	+0.5%	+9.3%
브로드컴	264.74	-3.96%	+14.81%	캐터필러	390.92	+0.7%	+8.68%
AMD	136.11	-4.08%	+12.68%	보잉	209.79	+0.12%	+18.53%
마이크론	120.89	-1.91%	+43.83%	넥스트에라	73.06	+5.2%	+3.6%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DTD(%)	YTD(%)	지수	가격	DTD(%)	YTD(%)
코스피	3,089.65	+0.58%	+28.76%	USD/KRW	1,359.00	+0.27%	-7.7%
코스피200	416.26	+0.4%	+30.97%	달러 지수	96.66	-0.22%	-10.9%
코스닥	783.67	+0.28%	+15.55%	EUR/USD	1.18	+0.16%	+14.02%
코스닥150	1,268.65	+0.12%	+12.29%	USD/CNH	7.16	+0.05%	-2.41%
S&P500	6,198.01	-0.11%	+5.38%	USD/JPY	143.42	-0.42%	-8.77%
NASDAQ	20,202.89	-0.82%	+4.62%	채권시장		가격	DTD(bp)
다우	44,494.94	+0.91%	+4.59%	국고채 3년	2,452	-0.3bp	-14.3bp
VIX	16.83	+0.6%	-3%	국고채 10년	2,785	-2.2bp	-8.6bp
러셀2000	2,197.54	+1.03%	-1.46%	미국 국채 2년	3,773	+5.3bp	-46.9bp
필라. 반도체	5,507.50	-0.7%	+10.59%	미국 국채 10년	4,242	+1.4bp	-32.7bp
다우 운송	15,833.47	+2.85%	-0.39%	미국 국채 30년	4,765	-1bp	-1.7bp
상해종합	3,457.75	+0.39%	+3.16%	독일 국채 10년	2,574	-3.3bp	+20.7bp
항셍 H	8,678.30	-0.96%	+19.05%	원자재 시장		가격	DTD(%)
인도 SENSEX	83,697.29	+0.11%	+7.11%	WTI	65.45	+0.52%	-5.81%
유럽, ETFs		가격	DTD(%)	YTD(%)	브렌트유	67.11	-0.74%
Eurostoxx50	5,282.43	-0.39%	+7.89%	금	3,349.80	+1.27%	+23.29%
MSCI 전세계 지수	917.89	+0.34%	+9.1%	은	36.08	+0.64%	+23.39%
MSCI DM 지수	4,026.44	+0.43%	+8.59%	구리	504.80	+0.36%	+25.37%
MSCI EM 지수	1,222.78	-0.47%	+13.7%	BDI	1,489.00	-2.1%	+49.35%
MSCI 한국 ETF	71.64	-0.2%	+40.77%	옥수수	406.00	-0.79%	-8.25%
디지털화폐		가격	DTD(%)	YTD(%)	밀	549.00	+2%
비트코인	105,949.26	-1.54%	+13.06%	대두	1,027.25	+0.02%	+0.2%
이더리움	2,415.88	-3.51%	-27.81%	커피	291.95	-2.72%	-3.3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7월 1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알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있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기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기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제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징계 됩니다.